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국가유공자 가정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동참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11월 17일 고양시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고양시 보훈단체 협의회 이묘상 회장, 이성열 대표간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참석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월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고귀한 정신에 보답하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의정부문 수상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11월 27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부문 우수지방의회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더300, 더리더)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뉴스1, 뉴시스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대표정책을 발굴해 폭넓게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0년 의정부문을 신설해 지방의회의 우수 운영사례와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만한 활동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평화협력시대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경기북부 지역 의장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상식



겨울에도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독은 무더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도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노로바이러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출처 질병관리청

1.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란 무엇이고, 그 증상은 어떨까?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겨울에 자주 발생하며,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될까?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다.

3.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법?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다(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li> <li>②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다(특히, 굴, 조개류).</li> <li>③ 물은 끓여 마신다.</li> </ul>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다.</li> <li>②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한다.</li> <li>③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는다. (식품취급자, 간호직 종사자는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3일까지 식품취급, 간호업무 자제)</li> </ul>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여 사용한다.</li> <li>②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한다.</li> <li>③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한다.</li> <li>④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완쾌한 다음 청소, 소독 후 3일 뒤에 방문하도록 한다.</li> <li>⑤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한다.</li> </ul>